

글로벌 펀드플로우 주간 리포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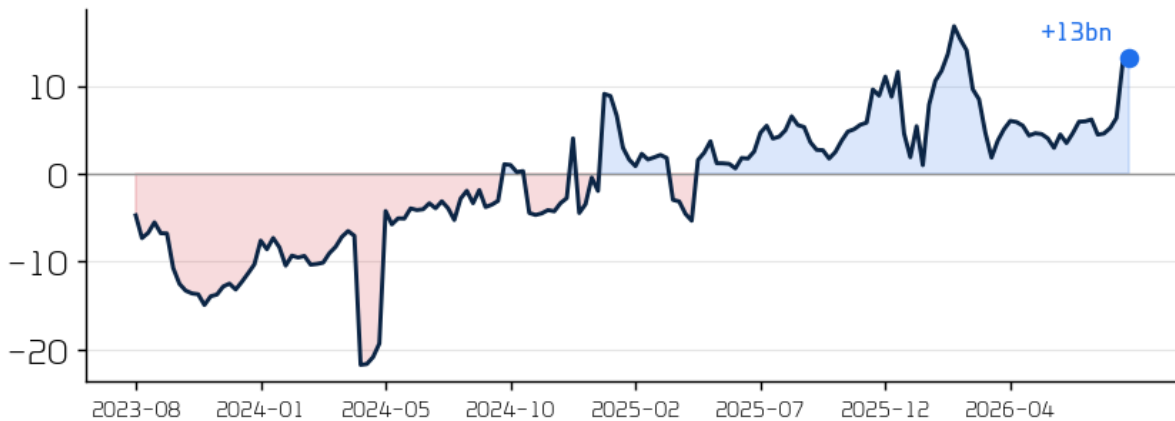
2026.09.07 · 데이터 마감 2026.09.02(수) 주간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글로벌 펀드에 이번 주 699 억달러가 들어왔다. 4 주간 안전자산이 위험자산보다 525 억달러 더 담겼지만 위험 선호는 중간 수준이고, 현금성 자산과 주식이 나란히 불어나는 추세다.

전체 순유입(4 주) +209.9 bn · 위험 선호는 최근 5 년 중 상위 44% 수준 · 주식 4 주 유입은 2000 년 이후 상위 11% 수준

이번 주 주인공: 혼합형(멀티에셋) —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 ·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3%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ment

- 전체 펀드에 이번 주 699 억달러, 최근 4 주간 2,099 억달러가 순유입됐다
- 4 주간 안전자산이 위험자산보다 525 억달러 더 담겼으나 위험 선호는 중간 수준
- 주식형은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이 최근 3 년 중 상위 4%까지 넓어졌다
- 혼합형·대체투자도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이 최근 3 년 중 상위 1%
- 귀금속에 4 주간 117 억달러,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7%
- 부동산은 4 주간 9 억달러 순유출,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하위 4%

이번 주 전체 펀드에 699 억달러, 최근 4 주간 2,099 억달러가 들어왔다. 4 주간 안전자산이 위험자산보다 525 억달러 더 담겼지만, 위험 선호는 최근 5 년과 비교해 상위 44%로 중간 수준이다. 눈에 띄는 건 현금성 자산에 4 주간 728 억달러가 몰리는 동시에 주식형에도 500 억달러가 들어왔다는 점이다. 현금과 위험자산이 함께 불어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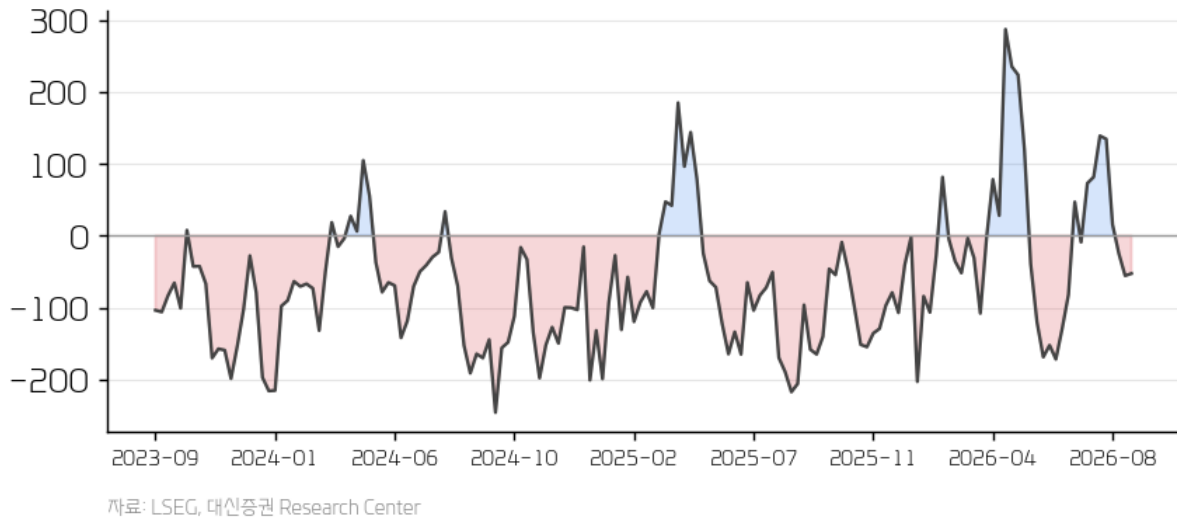
주식형은 자산 규모를 감안한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29%로 평범하다. 대신 돈이 들어온 펀드의 비율이 최근 3 년 중 상위 4%까지 넓어졌다. 소수의 큰 펀드가 아니라 여러 펀드에 골고루 들어왔다는 뜻이다. 혼합형과 대체투자도 같은 모습이다. 이번 자금은 한쪽에 건 베팅보다 나눠 담기에 가깝다.



위험선호 — 현재 「중립」 국면

● 중립 (Neutral) 위험자산-안전자산 4 주 -52.5 bn · 위험선호 강도는 최근 5 년 중 상위 4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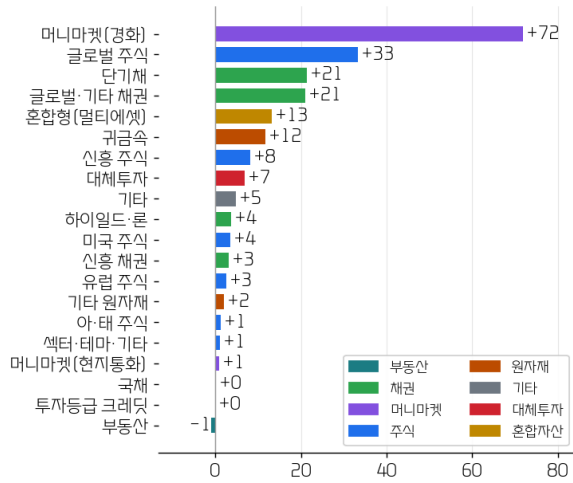
위험선호 지표 (위험자산 vs 안전자산, 4 주누적 USD bn)



- **현금성(머니마켓)**: 4 주간 728 억달러로 금액은 가장 크지만, 굴리는 자산 대비로는 0.7%에 그친다.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하위 49%,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48.9%로 최근 3 년 중 하위 44% — 금액만 클 뿐 이례적인 쏠림은 아니다.
- **주식**: 4 주간 500 억달러. 자산 대비로는 0.18%로 덩치가 큰 만큼 비율은 낮게 나온다. 대신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이 50.6%로 최근 3 년 중 상위 4% — 넓게 퍼진 매수다.
- **채권**: 4 주간 494 억달러, 자산 대비 0.54%. 유입 세기(최근 5 년 중 상위 40%)와 펀드 확산 정도(최근 3 년 중 상위 23%) 모두 평상 범위의 무난한 유입이다.
- **원자재**: 금액은 138 억달러로 작지만 자산 대비 2.44%로 전 자산군 중 두 번째로 높다.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8%,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59.0%로 최근 3 년 중 상위 10%다.
- **기타 자산군**: 자산 대비 2.57%로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1%인데,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48.2%로 최근 3 년 중 하위 10%다. 강도와 확산이 엇갈린다.
- **부동산**: 4 주간 9 억달러 순유출. 자금 흐름이 최근 5 년 중 하위 4%에 해당할 만큼 유출이 뚜렷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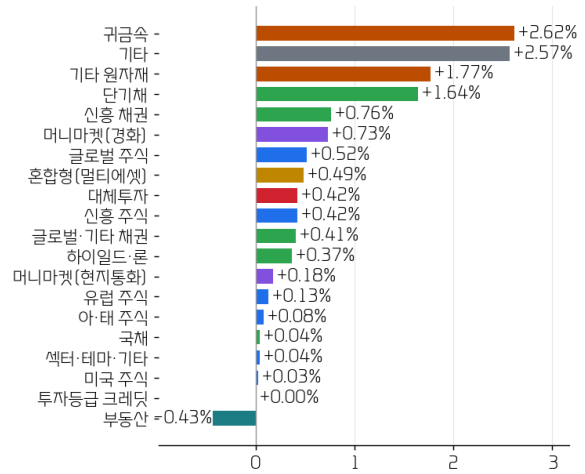
권역·테마 — 규모(절대금액) vs 강도(자산대비)

권역·테마 그룹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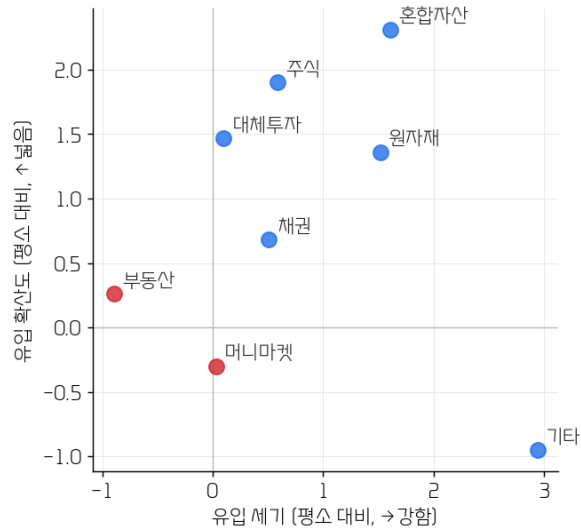
권역·테마 그룹 4 주 유입강도 (순유입 ÷ 자산, %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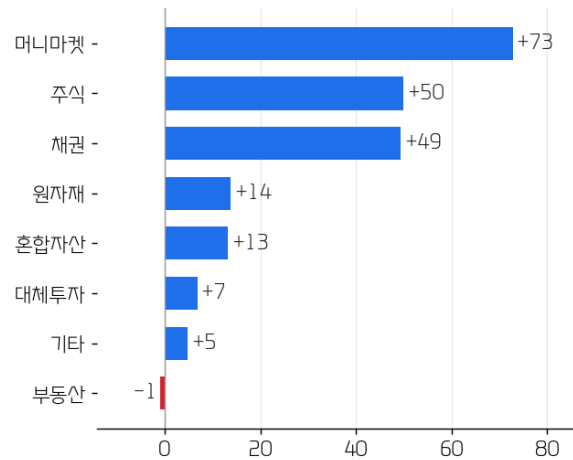
매크로 자산군 — 강도·참여폭

유입 세기 × 확산도 신호 사분면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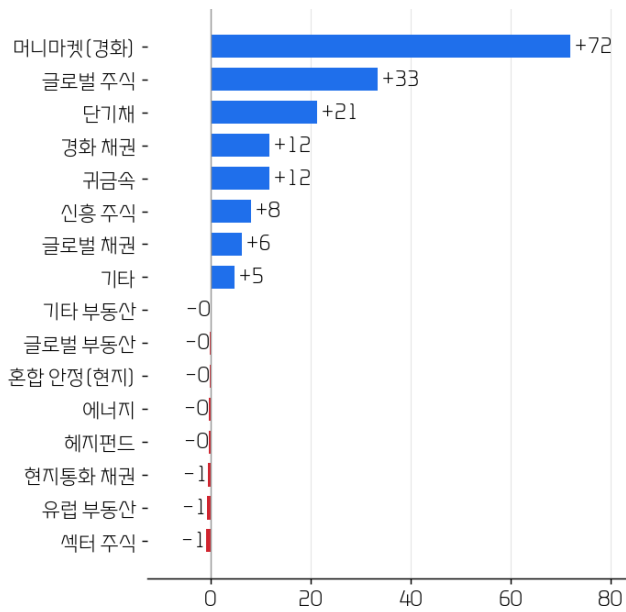
매크로 자산군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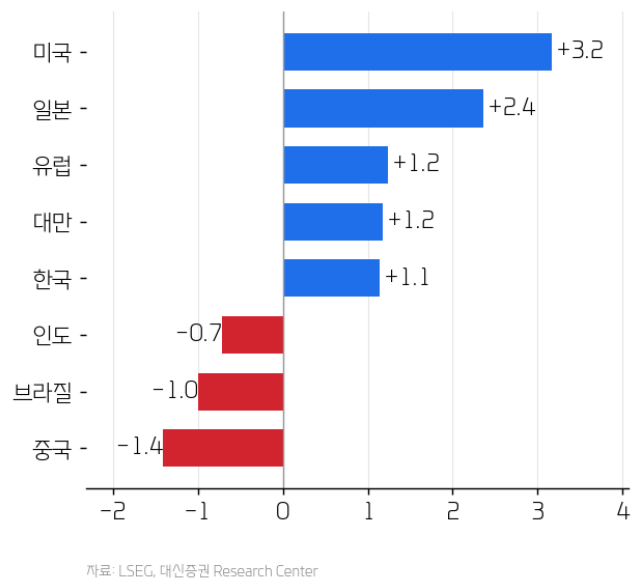
섹터·지역 로테이션

섹터·지역 로테이션 — 4 주 순유입 상·하위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주식 국가별 4 주 순유입 (USD bn, 참고·비합산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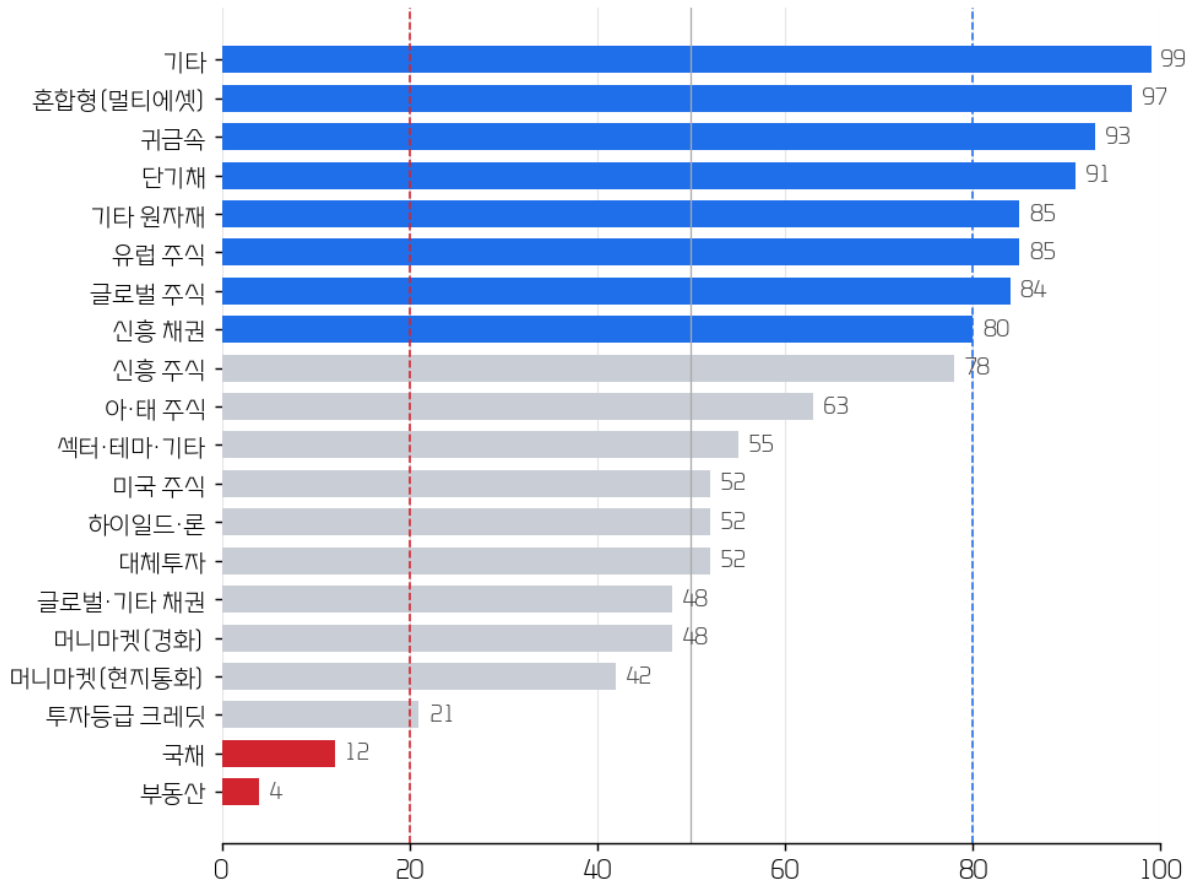
권역별로는 글로벌 주식에 4 주간 334 억달러가 들어와 주식 유입을 이끌었고,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16%다. 유럽 주식은 26 억달러로 금액은 작지만 세기는 상위 15%, 신흥 주식은 82 억달러가 들어왔다. 미국 주식은 4 주간 35 억달러로 자산 대비 0.03%, 사실상 제자리다.

채권 안에서는 단기채로 자금이 몰렸다. 4 주간 214 억달러, 자산 대비 1.64%로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9%다. 반면 국채는 2 억달러로 제자리에 가깝고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하위 12%, 투자등급 회사채는 순유입이 사실상 없었다. 만기 짧은 쪽으로만 선호가 쏠린 모습이다.

국가별로는 일본(4 주간 24 억달러), 대만(12 억달러), 유럽(12 억달러), 한국(11 억달러)에 자금이 들어왔고 중국(-14 억달러), 브라질(-10 억달러), 인도(-7 억달러)에서는 빠져나갔다. 미국은 4 주 누적으로 32 억달러 순유입이지만 이번 한 주에는 45 억달러가 유출됐다. 한 주 치 숫자만으로 방향 전환을 단정하긴 이르다.

신호 · 역사적 극단

유입 세기의 5 년 내 위치 (0~100) — 80 위는 과열권, 20 아래는 침체권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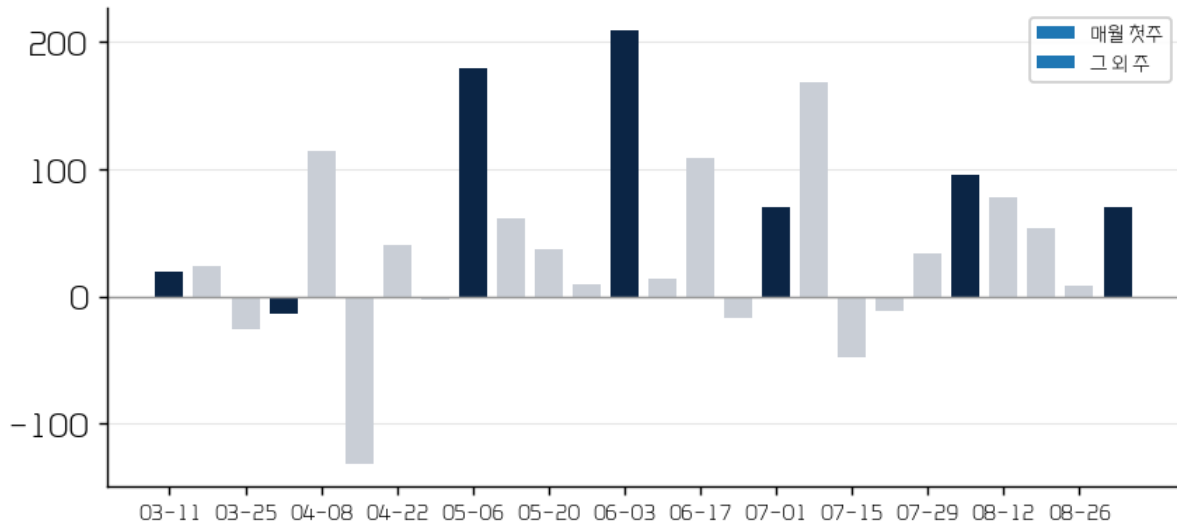
혼합형은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3%,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최근 3 년 중 상위 1%다. 대체투자도 펀드 확산 정도가 최근 3 년 중 상위 1%로 같은 모습이다. 여러 자산에 나눠 담는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.

원자재와 귀금속의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7~8%인 것은 안전자산 선호와 같은 방향의 참고 신호다. 국채가 최근 5 년 중 하위 12%에 머문 것과는 대비된다.

부동산은 유출 국면이 이어진다. 낙폭이 큰 만큼 역발상 관점의 관찰 대상이지만 아직 되돌림 조짐은 없다. 주식형의 4 주 유입 금액은 2000 년 이후 모든 주와 비교해 상위 11%로 큰 편이나, 자산 규모를 감안한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29%로 평범하다.

유의점 · 해석 한계

주간 총 순유입 (USD bn) — 진한 막대 = 매월 첫 주(월간 보고 펀드 반영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월간으로만 실적을 보고하는 펀드의 데이터가 특정 주간에 한꺼번에 반영되면 숫자가 크게 튕다. 한 주 치 숫자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되고, 4 주 누적과 과거 대비 위치를 함께 봐야 한다.

'기타' 자산군처럼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1%인데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최근 3 년 중 하위 10%인 경우도 있다. 이런 엇갈림은 일부 펀드로의 쏠림일 가능성이 있어, 금액만 보고 '광범위한 매수'라 단정하면 안 된다. 미국의 이번 주 45 억달러 유출도 지속 여부는 다음 주 확인이 필요하다.

자산군별 상세

앞의 큰 그림을 자산군마다 한 단계(권역·스타일·듀레이션·통화) 더 내려본다. 주식·대체투자·채권·머니마켓은 세부 종목까지, 나머지는 중분류까지. 규모가 미미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코리는 제외했다. 절대금액(bn)은 굴리는 자산이 큰 시장(미국 등)이 늘 상위에 오므로, 강도(자산대비%)를 함께 봐야 규모 효과를 걷어내고 실제로 세계 들어온 곳이 보인다.

주식 4 주 +50.0 bn

중분류	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글로벌 주식		+8.6	+33.4	67%	+0.5%
신흥 주식		+2.3	+8.2	16%	+0.4%
북미 주식		-4.7	+3.5	7%	+0.0%
유럽 주식		+0.8	+2.6	5%	+0.1%
테마 주식		+1.6	+1.5	3%	+0.5%
아·태 주식		+0.6	+1.2	2%	+0.1%
기타 주식		+0.0	+0.4	1%	+0.7%
부동산 주식		+0.3	+0.1	0%	+0.1%
섹터 주식		-2.8	-0.9	-2%	-0.0%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	강도(자산대비%)
글로벌	글로벌 주식	+6.2	+21.9		+0.6%
신흥 전반	신흥 주식	+2.2	+8.3		+0.6%
글로벌(미국 제외)	글로벌 주식	+1.0	+6.2		+0.3%
글로벌 배당	글로벌 주식	+1.2	+3.9		+1.1%
미국(광의·대형)	북미 주식	-3.5	+3.8		+0.0%
미국 배당	북미 주식	+1.4	+3.5		+0.4%
금융 섹터	섹터 주식	-1.3	-4.4		-2.5%
미국 중소형	북미 주식	-2.5	-4.1		-0.2%
UK	유럽 주식	-0.8	-1.5		-0.6%
Brazil	신흥 주식	-0.5	-1.1		-4.8%
Consumer Discretionary	섹터 주식	-0.3	-0.9		-2.1%
아·태(일본 제외)	아·태 주식	-0.4	-0.8		-0.4%

대체투자 4 주 +6.8 bn

이 자금의 59%는 사실상 상대가치 한 갈래(+4.0 bn)

중분류	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리쿼드 대체		+0.5	+4.2	62%	+0.6%
대체 채권		-0.1	+1.6	23%	+0.4%
대체 주식		+1.1	+1.1	17%	+0.3%
절대수익		+0.0	+0.3	4%	+0.3%
헤지펀드		-0.3	-0.4	-6%	-2.1%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	강도(자산대비%)
상대가치	리쿼드 대체	+0.5	+4.0		+1.2%
롱숏 주식(글로벌)	대체 주식	+0.5	+1.4		+3.4%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주식 마켓뉴트럴	대체 주식	+0.2	+1.1	+2.5%
Bond EUR	대체 채권	+0.0	+1.0	+1.2%
Credit Focus	대체 채권	-0.1	+0.9	+0.4%
롱숏 주식(미국)	대체 주식	+0.1	+0.7	+1.1%
레버리지 주식	대체 주식	+0.2	-2.2	-1.0%

채권 4 주 +49.4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단기채	+7.5	+21.4	43%	+1.6%
경화 채권	+2.8	+11.7	24%	+0.4%
글로벌 채권	+1.9	+6.3	13%	+0.6%
기타 채권	+0.5	+3.4	7%	+0.7%
신흥 채권	+0.7	+3.1	6%	+0.8%
뱅크론	+1.1	+3.1	6%	+1.4%
하이일드	+0.8	+0.6	1%	+0.1%
국채	-3.3	+0.2	0%	+0.0%
회사채	-1.4	+0.0	0%	+0.0%
현지통화 채권	-0.6	-0.5	-1%	-0.1%
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강도(자산대비%)
USD Government Short Term	단기채	+5.2	+12.6	+3.5%
미국채 단기	단기채	+1.4	+4.7	+1.0%
글로벌 채권(USD)	글로벌 채권	+1.9	+3.9	+0.7%
미국채 중기	경화 채권	+0.3	+3.3	+0.3%
Loan Participation Funds	뱅크론	+1.1	+3.1	+1.4%
Global Short Term	단기채	+0.3	+1.9	+0.9%
미 면세 MMF	경화 채권	+1.0	-1.5	-1.2%
미 국채	국채	-3.6	-1.4	-0.5%
미 하이일드	하이일드	+0.0	-1.1	-0.3%
미 회사채	회사채	-1.3	-0.5	-0.2%
Global High Yield USD	하이일드	+0.3	-0.5	-0.5%
Global AUD	글로벌 채권	+0.1	+0.5	+3.2%

머니마켓 4 주 +72.8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머니마켓(경화)	+50.9	+71.9	99%	+0.7%
머니마켓(기타)	+0.4	+0.9	1%	+1.2%
머니마켓(현지통화)	-5.7	+0.0	0%	+0.0%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강도(자산대비%)
미 달러 MMF	머니마켓(경화)	+68.0	+93.7	+1.1%
TRY	머니마켓(현지통화)	-0.0	+1.6	+2.9%
ARS	머니마켓(현지통화)	+0.8	+0.9	+2.8%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COP	머니마켓(현지통화)	+0.4	+0.9	+2.2%
글로벌 MMF	머니마켓(기타)	+0.4	+0.8	+1.2%
원화 MMF	머니마켓(현지통화)	-6.8	-3.4	-2.3%
유로 MMF	머니마켓(경화)	-15.0	-13.5	-1.1%
파운드 MMF	머니마켓(경화)	-1.6	-8.4	-1.9%

혼합자산 4 주 +13.2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혼합 중립(경화)	+0.7	+4.5	34%	+0.7%
혼합 유연(경화)	+0.8	+3.5	27%	+0.5%
혼합 적극(경화)	+0.1	+2.5	19%	+0.5%
혼합 안정(경화)	+0.6	+1.1	9%	+0.4%
혼합 중립(현지)	+0.1	+0.7	6%	+1.1%
타깃 만기형	+0.2	+0.5	4%	+0.4%
혼합 기타	+0.2	+0.3	2%	+0.3%
혼합 적극(현지)	+0.0	+0.1	0%	+0.1%
혼합 유연(현지)	+0.0	+0.0	0%	+0.1%
혼합 안정(현지)	+0.2	-0.2	-1%	-0.1%

원자재 4 주 +13.8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귀금속	+2.8	+11.7	85%	+2.6%
복합 원자재	+0.5	+1.9	13%	+2.0%
기타 원자재	+0.1	+0.4	3%	+5.9%
농산물	+0.2	+0.1	1%	+5.7%
산업금속	-0.0	+0.0	0%	+0.2%
에너지	-0.2	-0.3	-2%	-2.1%

기타 4 주 +4.8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기타	+0.3	+4.8	100%	+2.6%

부동산 4 주 -0.9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아·태 부동산	+0.0	+0.0	0%	—
미국 부동산	-0.0	-0.0	0%	—
기타 부동산	-0.0	-0.0	2%	-0.2%
글로벌 부동산	-0.0	-0.1	12%	-0.5%
유럽 부동산	-0.3	-0.8	86%	-0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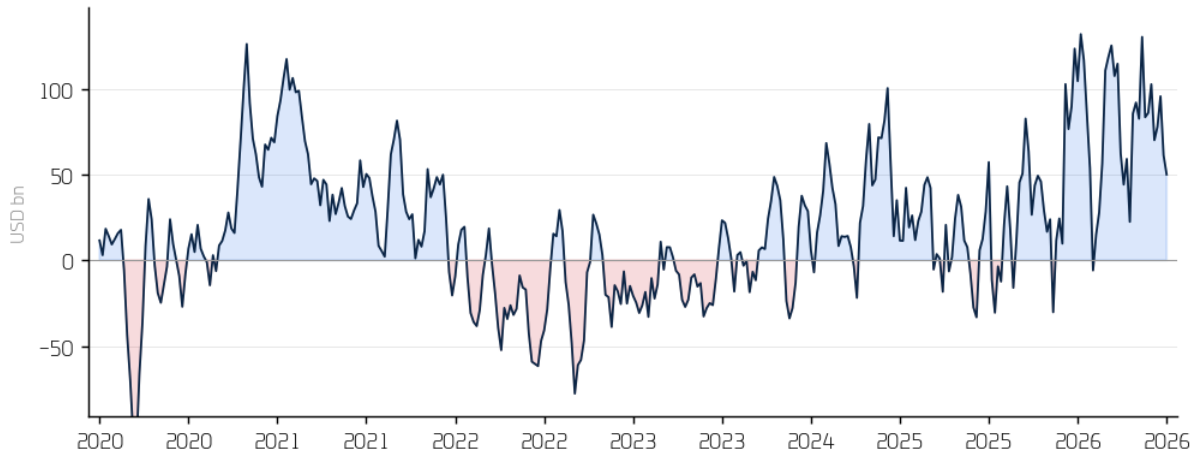
강도(자산대비%) = 4 주 순유입 ÷ 그 항목이 굴리는 자산. 절대금액이 커도 강도가 낮으면 '덜치라서 큰 것', 작아도 강도가 높으면 '세게 들어온 것'(자산 \$10 억 미만은 노이즈라 「—」). 비중 = 그 중분류가 자산군 순유입에서 차지하는 몫(순액 작은 자산군은 왜곡되어 「—」). 세부 품목은 4 주 순유입 규모가 큰 상·하위만 추렸다.

부록 — 권역·테마 그룹 (4 주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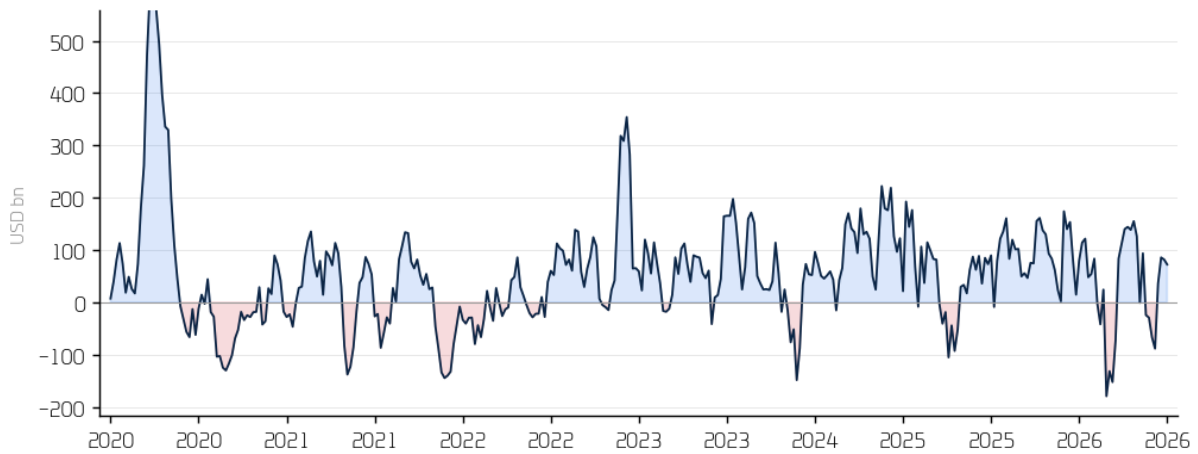
그룹	자산군	4 주 금액(bn)	자산대비(%)	5 년 내 위치
머니마켓(경화)	머니마켓	+71.9	+0.73	하위 48%
글로벌 주식	주식	+33.4	+0.52	상위 16%
단기채	채권	+21.4	+1.64	상위 9%
글로벌·기타 채권	채권	+20.9	+0.41	하위 48%
혼합형(멀티에셋)	혼합자산	+13.2	+0.49	상위 3%
귀금속	원자재	+11.7	+2.62	상위 7%
신흥 주식	주식	+8.2	+0.42	상위 22%
대체투자	대체투자	+6.8	+0.42	상위 48%
기타	기타	+4.8	+2.57	상위 1%
하이일드·론	채권	+3.7	+0.37	상위 48%
미국 주식	주식	+3.5	+0.03	상위 48%
신흥 채권	채권	+3.1	+0.76	상위 20%
유럽 주식	주식	+2.6	+0.13	상위 15%
기타 원자재	원자재	+2.1	+1.77	상위 15%
아·태 주식	주식	+1.2	+0.08	상위 37%
섹터·테마·기타	주식	+1.1	+0.04	상위 45%
머니마켓(현지통화)	머니마켓	+0.9	+0.18	하위 42%
국채	채권	+0.2	+0.04	하위 12%
투자등급 크레딧	채권	+0.0	+0.00	하위 21%
부동산	부동산	-0.9	-0.43	하위 4%

부록 — 6 대 자산군 자금흐름 추이 (4 주누적, 2020~현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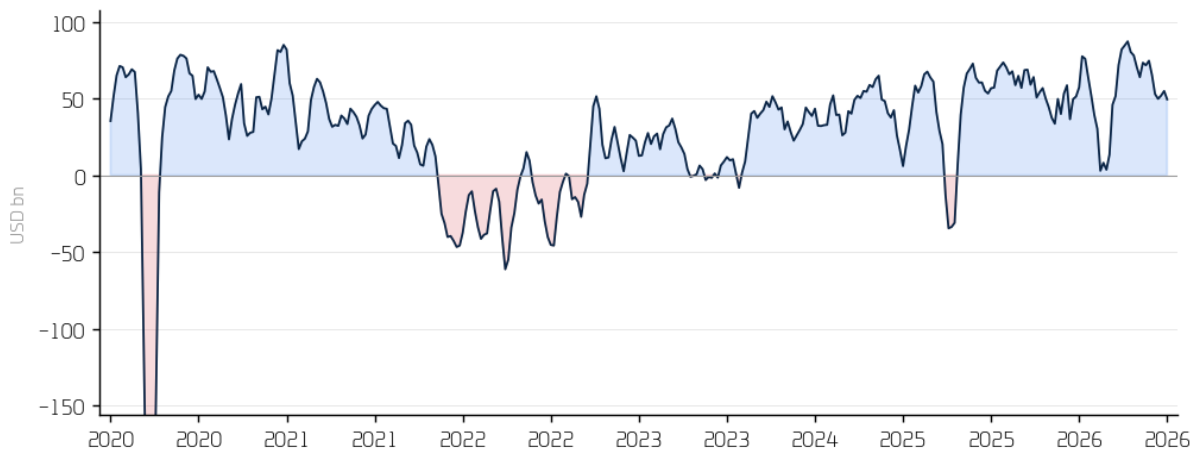
주식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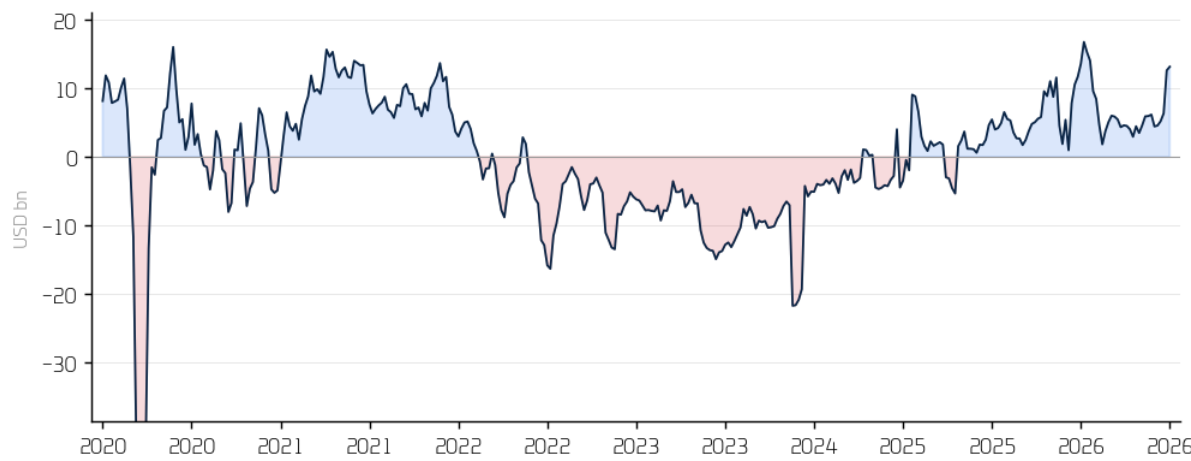
머니마켓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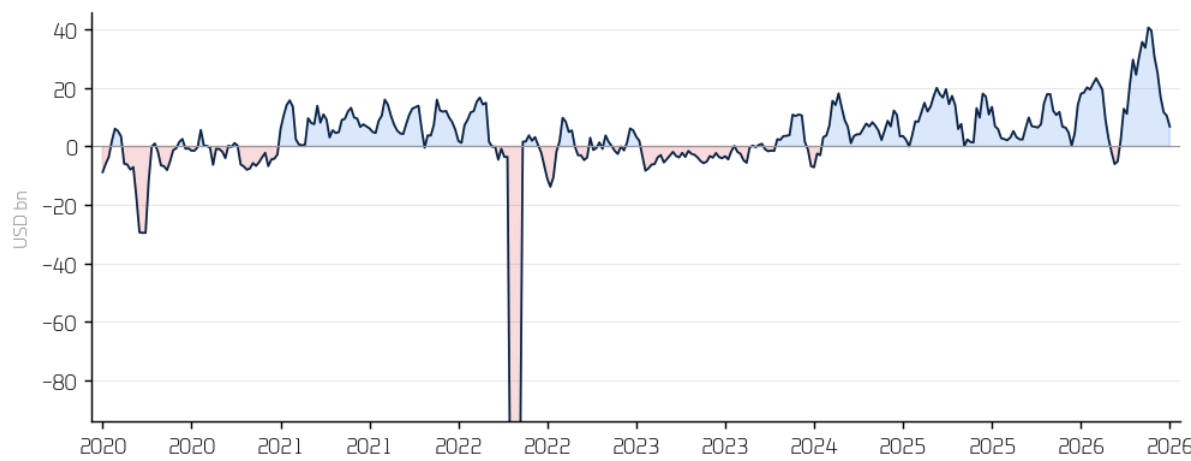
채권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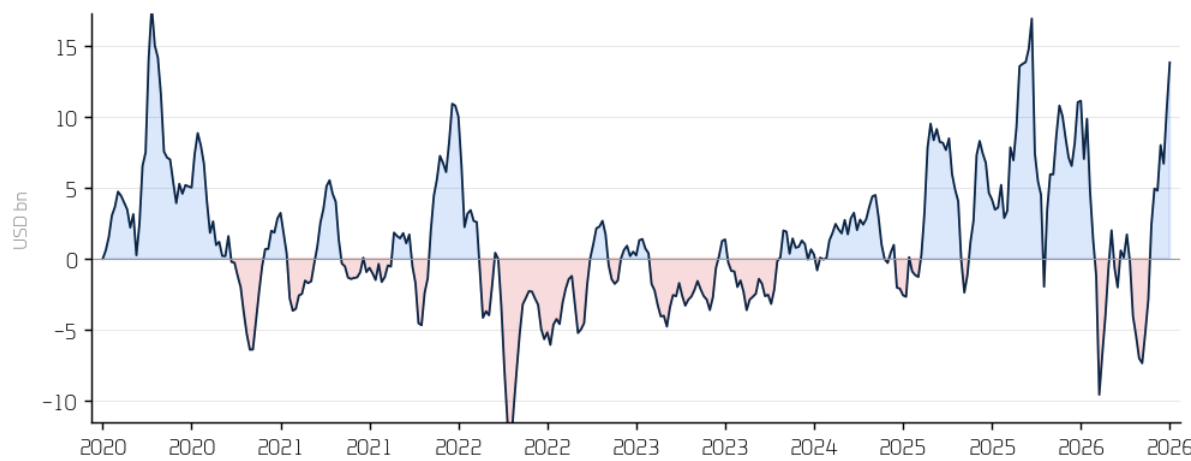
혼합자산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대체투자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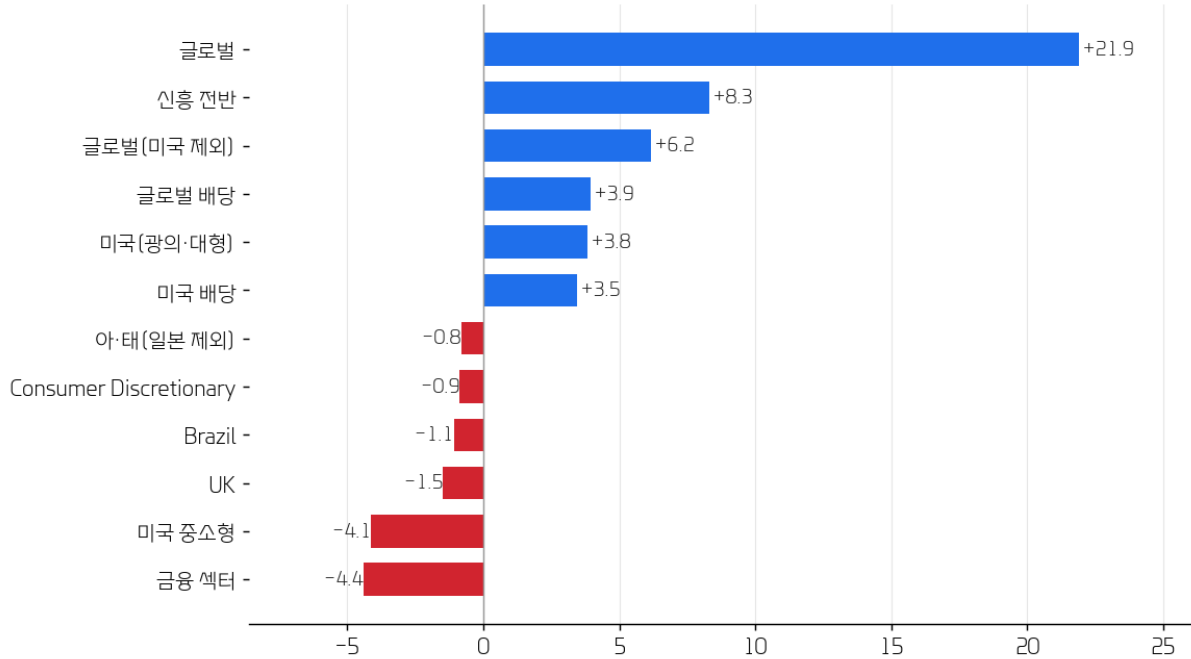
원자재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부록 — 자산군별 세부 차트 (4 주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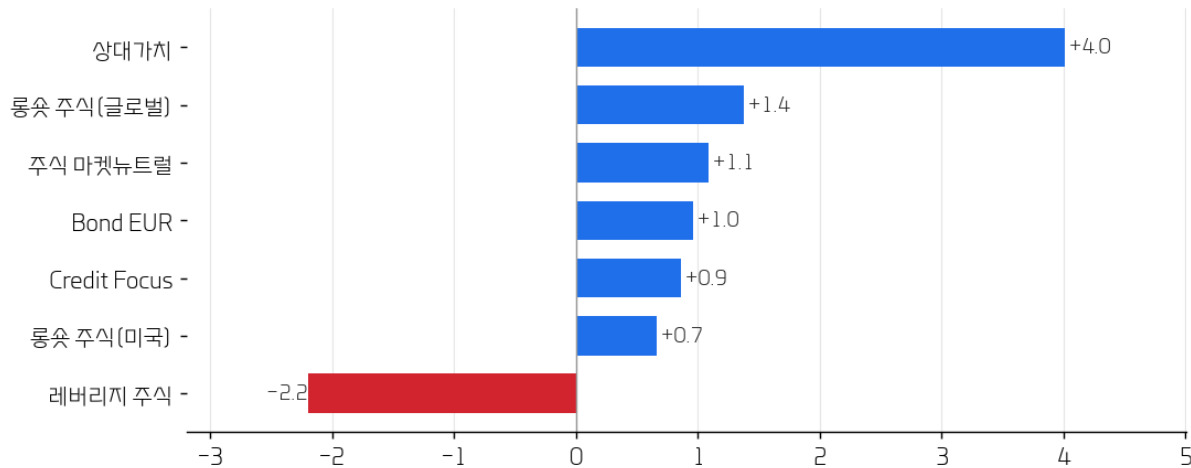
본문 「자산군별 상세」 표를 자산군마다 막대로. 절대금액(bn) 기준이라 규모 큰 항목(미국 등)이 길게 나타난다 — 자산대비 강도는 상세표를 함께 보라.

주식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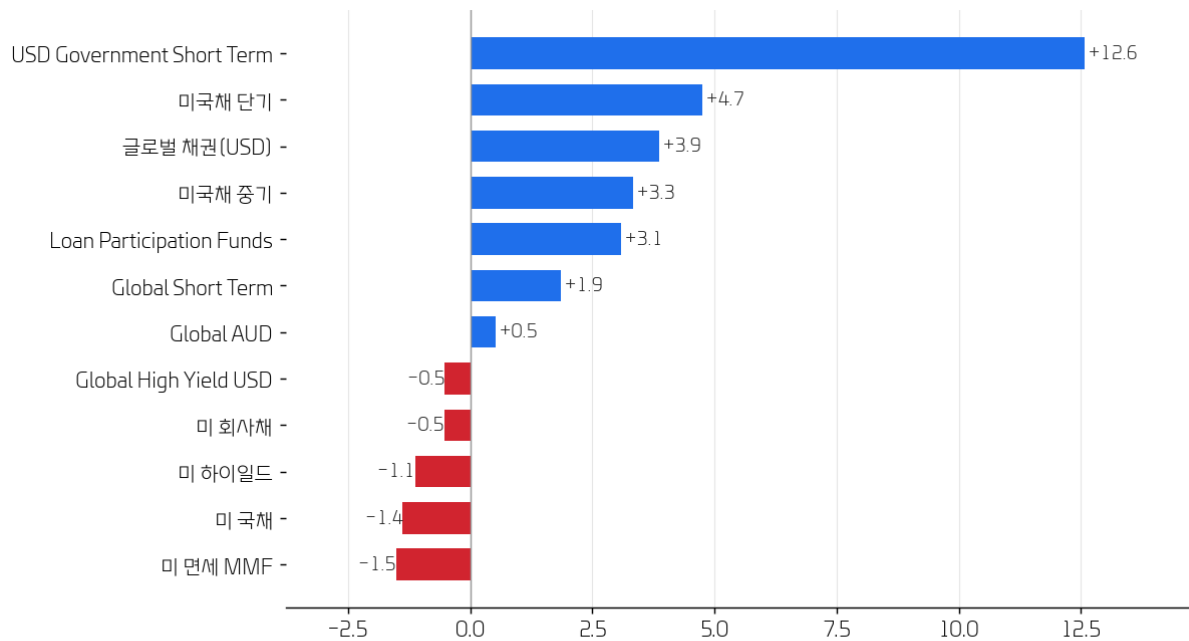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대체투자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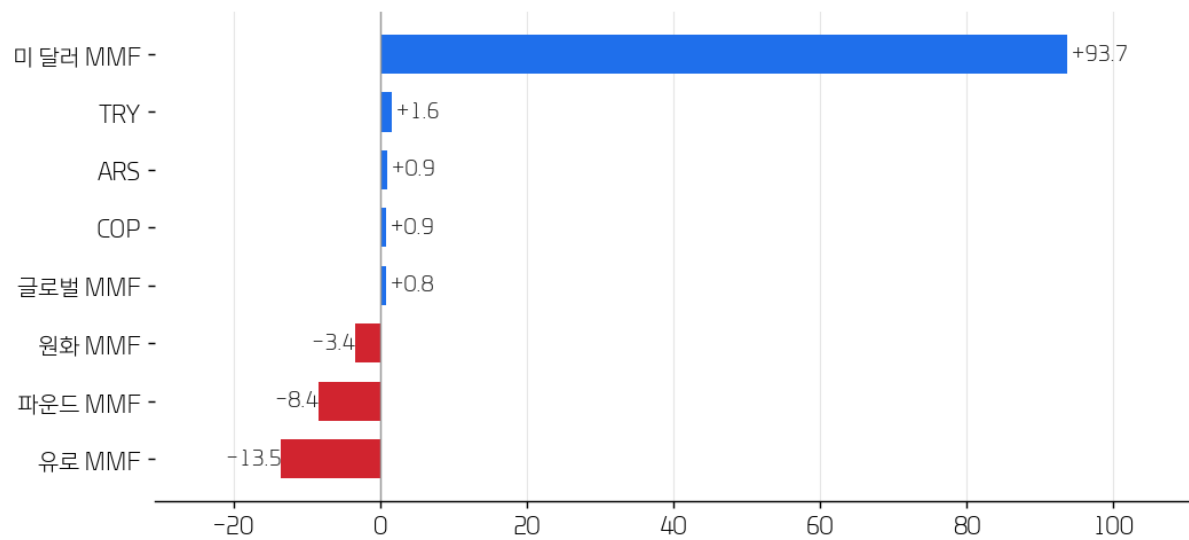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채권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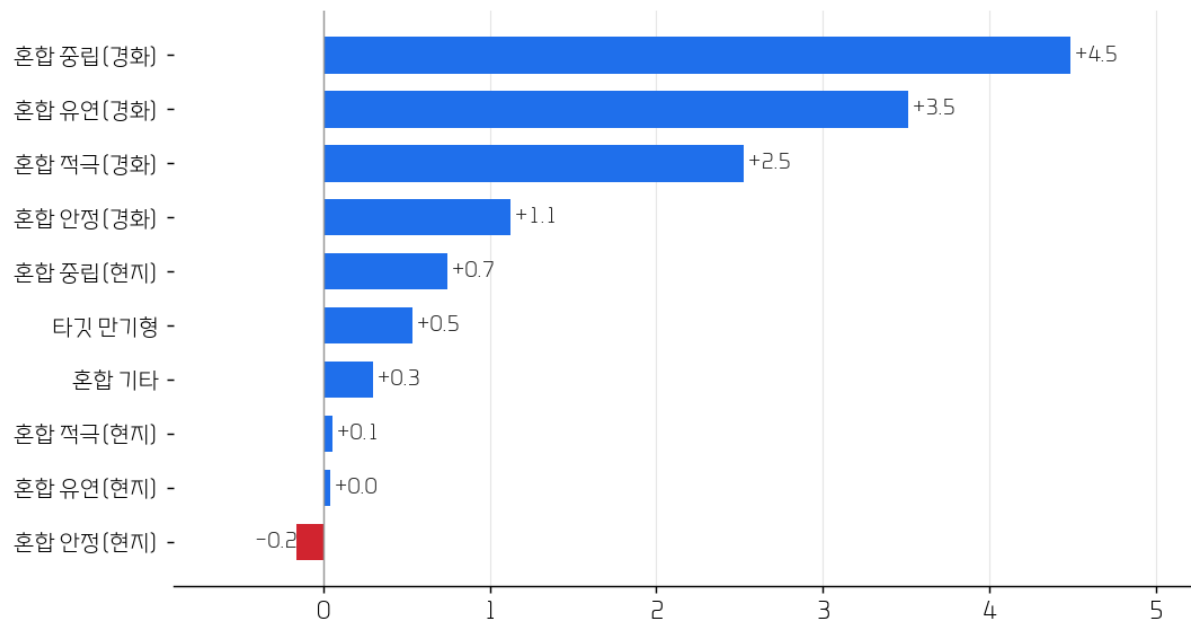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머니마켓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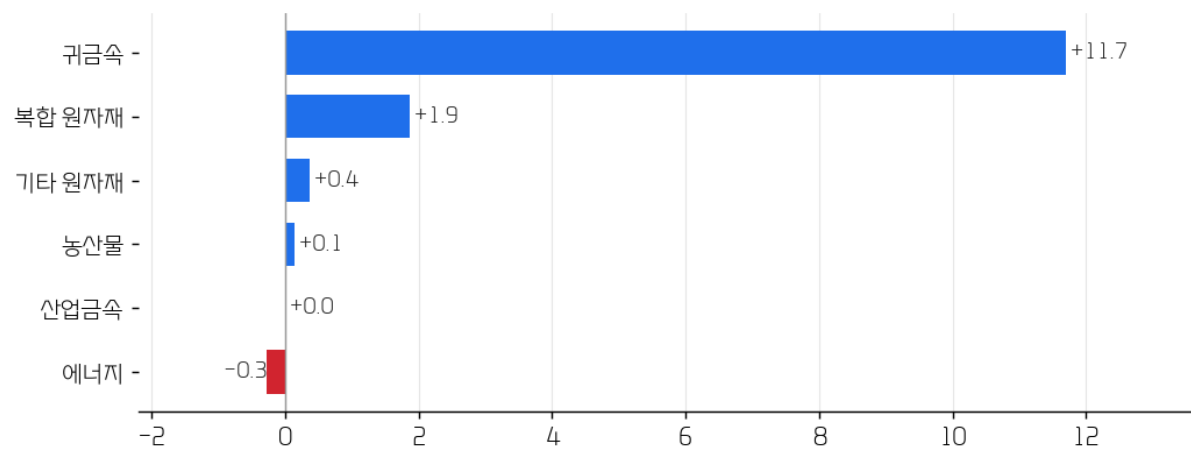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혼합자산 —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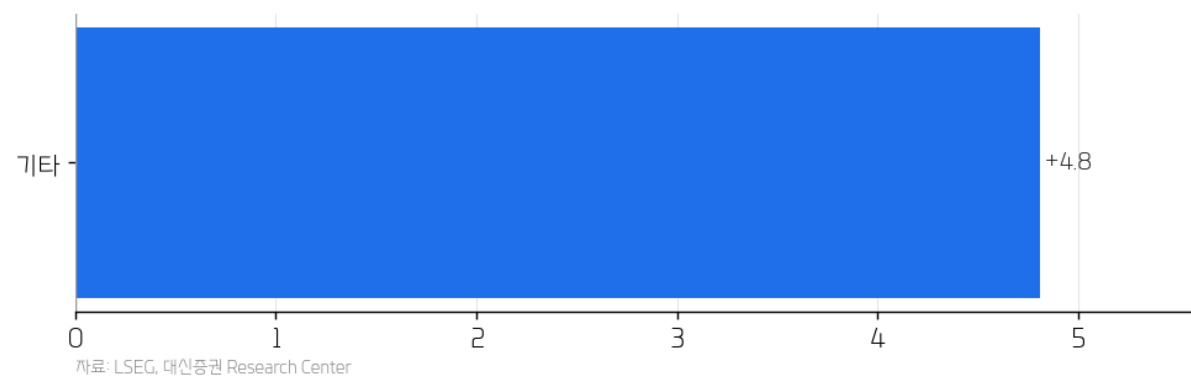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원자재 —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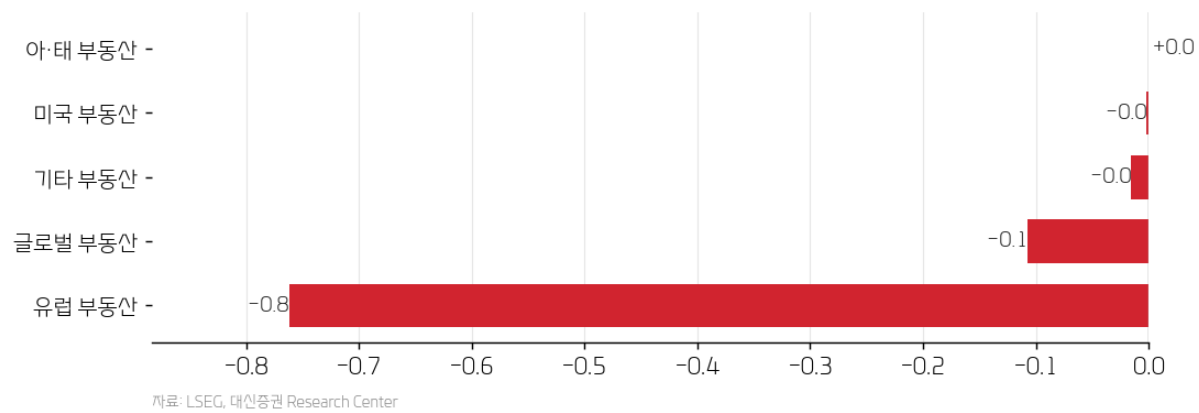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기타 —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부동산 —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. 금액(Estimated Net Flows, USD)·유입/유출 펀드 수. 매월 첫 주에 숫자가 튀는 특성(월간 보고 펀드)이 있어 4 주 누적·과거 대비 위치로 해석, 제공 수치 기반 분석이며 투자권유 아님.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